

“전문적 시각·다양한 관점으로 독자 이해도 높여야”

노년층 위한 건강상식 등 확대 소상공인 성장 돕는 사례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심층보도 눈길 “지역 현안 시민 의견·인식 반영”

전남일보 독자위원들이 세부적인 취재와 전문적인 시각이 결합된 후속 보도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전남일보 제11기 7차 독자위원회가 22일 전남일보 6층 회의실에서 진행했다.

2023년 첫 독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지난 두달간 보도된 기사에 대한 분석과 전남일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미경 신임 독자위원장, 이현석 위원, 박시현 위원, 윤동현 위원이 참석했다.

올해부터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미경 위원장은 “전남일보의 애독자로서 이렇게 중요한 중책을 맡게된 점,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앞으로의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낀다”며 “전남일보에 애정이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다.

박성원 전남일보 편집국장은 “새해 들어 전남일보가 의미있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사 평가에서 전남일보가 호남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18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 광고주에 제공하는 ‘2023 신문 광고지표’ 자료에서 총점 95점을 획득해 전국 410개 신문사 중 5위를 기록했다. 광주·전남에선 압도적 1위의 성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내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킨 전남일보의 시그니처 콘텐츠 ‘광주사람들’이 지난 17일자로 500명을 돌파해 좋은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분 좋게 한 해를 시작한 만큼 올 한해동안 더 알찬 신문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이미경 위원장=전남일보의 견고한 독자층 일부인 노년층을 위한 기사, 칼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한다. 간단한 건강 상식이라던가, 생활 속 밀접하게 닿아있는 팁들이 지면에 활어가 됐으면 좋겠다.

올해 초부터 보도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전남일보는 전반적으로 언론이 해야 할 역



이미경 위원장
전 광주시학교박청소년지원센터협의회장



박시현 위원
광주상공회의소 부장



이현석 위원
변호사



윤동현 위원
유튜버



전남일보 독자위원들이 22일 본사 6층 회의실에서 제11기 7차 독자위원회를 갖고 지난 보도기사에 대한 평가와 주요 이슈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할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듯 하다. 다만 좀 더 친절한 기사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전문적인 시선 또는 후속보도를 통한 다양한 방향에서의 접근들이 기사에 녹여진다면 독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박시현 위원=전남일보는 올해 첫 지면의 1면에 ‘민주주의3.0 시작합니다!’(1월2일자)로 지역사회에 화두를 던졌다. 아마 지역신문 중 유일하게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하는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을 보면서 ‘민주주의 3.0’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고 낯설어 지면이나 심지어 인터넷까지 찾아 봤지만 뚜렷한 정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지면에 할애된 만큼, 민주주의3.0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당시 지면을 살펴보면 민주주의3.0과의 연관성, 구체화, 보완 제시 등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전남일보 유튜브 콘텐츠 중 하나인 ‘막내즈’를 보면서 언론계 생활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높아졌다. 막내 연차에만 국한되지 않고, 5년차, 10년차, 부장급 기자 등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도 한 번 들어봤으면 한다.

● 이현석 위원=‘전통시장 불편?… 디지털 더하니 활기 샘솟는다’(1월2일자) 기사에서 지역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좋은 사례를 보여줬다. 많은 소상공인, 정보기술 창업자, 지자체 정책 결정자에게도 좋은 영감과 아이디어를 줬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

·전남지역 산업구조 특성상 다양한 형태의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앞으로도 이들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했으면 한다.

‘우수 지역업체…시공능력만 따지고 안 전 뒷전’(1월9일자) 기사에서는 학동, 화정동 참사에 관한 관계자 수사, 재판 상황 보도에 그치지 않고 사안의 본질에 접근한 노력이 돋보였다. 지역 업체 참여 조례에 관한 논란은 비단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 차례 참사를 겪은 지역인 만큼 지역업체 참여 조례를 예민하게 점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보도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내 새로운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

올해 첫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자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언론이나 지역언론들의 보도가 제도 소개 정도에 그쳐 아쉬웠다. 그런데 전남일보 ‘13년만에 100배 ↑…지역브랜드 특산물 적극 활용’(1월16일자) 기사의 경우 해당 제도의 원조인 일본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다양한 농수산물 특산물이 있는 광주·전남에도 좋은 시사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윤동현 위원=최근 전남일보의 온라인 홈페이지가 개선된 것에 개인적으로 큰 만족을 느끼고 있다. 가장 좋았던 점은 전체적인 디자인과 레이아웃, 직관적인 반응형 웹 등이다. 앞으로 온라인으로 더 많은 기사를 챙겨볼 수 있을 것 같다.

‘겨울 한과 맨몸으로…김고도 막막한 노숙인의 밤’(12월7일자) 기사는 평소 소수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라 눈길이 갔다. 노숙인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이 만연한데, 해당 기사는 노숙자와의 밀착 취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써 이해도가 높았다. 특히 노숙인의 현재 상황과 더불어 그들이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도 좋았지만, 노숙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과 해결 방향도 제시해 하나의 기사에서 다양한 것들을 잘 조합한 좋은 기사였다.

‘대법원 지원원 징역 2년형 2심 판결 확정’(1월12일자) 기사에서는 지역 현안과 밀접한 이슈인 만큼, 시민들의 인식이나 의견이 좀 더 들어갔으면 풍부한 기사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문화면 기사의 경우 단순히 축제나 행사 일정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과 느낀 점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사실 기사로 작성된 전반적인 내용들은 제목과 썸네일, 포스터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타사와 차별화하기 위해 전달자가 아닌 경험자로서 “~하더라”라는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한다.

박성원 편집국장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정론지로서 지역 현안에 대한 분석과 해법 제시,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이템 제작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우리 고향 살리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제1회 호남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

[전국 8도 고향사랑 페스티벌]

2023년 6월 30일(금) ~ 7월 2일(일) 수원컨벤션센터

주최 전남일보

주관 (주)한국전시산업원



내 고향 살리는 따뜻한 마음

